

제 52회 『저축의 날』

기 념 사

2015. 10. 27.(화)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 종 룡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입니다.

오늘 “52회 저축의 날”을 기념하면서,
수상자분들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964년도부터 50년 이상을 이어온
유서 깊은 기념일인 저축의 날을 맞이하여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저축의 중요성에 대해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의 주인공으로 선정되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과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 미담사례 소개

여러분,

우선, 오늘 수상하신 분들 가운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축을 통해 나눔과 봉사의 미덕을 실천하신
훈훈한 감동의 이야기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으시는 박원균님이십니다.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16세 나이에 기술공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월급의 60%를 저축하는 습관과 근검절약으로
현재는 연 30~4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기업인이 되셨습니다.

회사주식의 상당부분을 전 직원에게 분배하고
회사의 이익도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며
한번 입사하면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일터로
발전시키셨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어려운 이를 돕겠다는 삶의 철학을 가지고
매월 2백만원씩 10년 이상 꾸준히 기부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2014년 개인사재 5억원을 출연하여
‘재단법인 진남장학회’를 설립하여,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몸소 실천하고 계십니다.

마음 속 깊이 존경을 표합니다.

다음은 국민포장을 받으시는 이근명님이십니다.

이근명님께서서는,
일찌기 남편을 여의고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겪었으나,

결코 좌절하지 않고 저축을 통해 희망을 키워가며
남편이 운영하던 싱크대 제조사를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으켜
어엿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특히, 사업이 성공해 나가면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은 이후에도

매년 일정금액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며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희망전도사**로서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에 앞장 서 오셨습니다.

또 한분의 미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국민포장의 영예를 안으신 **장광순**님이십니다.

장광순님께서는,
청소원으로 근무하면서 많지 않은 급여로도
근검절약하는 알뜰한 생활습관으로

은행에 정기예금과 적금, 펀드, 재형저축 등
무려 9개의 통장을 만들어 유지함으로써
저축을 생활화하고 계십니다.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 여건 하에서도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한결같은 마음과 자세를 견지해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포장 수상자인
홍순탁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홍순탁님께서는
6.25전쟁 중 혈혈단신으로 월남하여
오직 근검절약과 저축으로 50년의 격동기를 극복하고
자립한 저축생활의 실천자입니다.

특히, 금년에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25억원을 기부함으로써
어렵게 일궈낸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게
도전과 희망의 정신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미처 소개드리지 못한 다른 수상자 모든 분들께도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3. 저축의 중요성과 향후 정책방향

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은 작고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일어섰습니다.

이는 “잘 살아보겠다”는 신념 하나로
한푼 두푼 소중하게 아끼고 모은
국민 여러분의 저축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축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특히, 국민 개개인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100세 시대”를 위해
건전하고 스마트한 저축습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국민들이 제대로 저축과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부는 “향후 30년의 성장”을 위해
4대 개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하고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정 성공적인 금융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개혁의 성과가 국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금융개혁을 통해
국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바로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보다 쉽고 제대로 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자산관리 서비스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다양한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서민과 농어민 등을 위한
정책성 저축상품도 적극 공급할 계획입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 나가는 서민들이
종갓돈 마련을 통해 자활하실 수 있도록
금년 9월에 “미소드림적금”을 출시하였습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경우

20여년전 정해진 이후 그대로 유지 중인 가입한도를
현행보다 두 배 수준으로 늘려서,

농어민의 목돈 마련에

보다 현실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저축상품이 시중에 있다 하더라도

어린 시절부터 저축에 관한 건전한 생활습관이

몸에 배어 있지 않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제대로 된 저축을 실천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초등학생들이

저축의 중요성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저축의 날 기념 그림 공모전”을 처음 시행하였습니다.

전국에서 약 1,300명의 초등학생들이 응모할 정도로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가장 높은 순위로 입상한

한국경진학교 이상민 학생, 서울두산초등학교 안재균 학생,

서울은천초등학교 강지원 학생 등 8명의 학생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4. 마무리 말씀

내외 귀빈 여러분,

“저축하고 투자하라. 그리고 또 저축하고 투자하라.”

미국의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이

재산을 늘리기 위한 원칙으로

제시한 말입니다.

단순하고 간결하지만 정곡을 찌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축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되새겨 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